

GLOBAL DEFENSE NEWS

기 동 우크라이나, 하르키우사로부터 개량형 T-64 전차 인수

함 정 중국, 두 번째 Type 901 고속 군수지원함 취역

항 공 러시아, 6세대 무인전투기 오크호트니크 개발 중

방호·유도무기 미 육군, 아이언돔 2개 포대분 도입 예정

전재·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<Global Defense News>로
전 세계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우크라이나, 하르키우사로부터 개량형 T-64 전차 인수

○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르키우사로부터 개량형 T-40 전차를 최소 100대 인수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힘.

- 전차 승무원들은 최상의 전투능력, 현대식 열상장비, 안전한 디지털 통신, 위성항법장치, 새로운 능동방어체계로 개발

↳ 1개 여단 전체에 배치하기 충분한 수량이라고 밝힘

○ T-64전차를 2017형상으로 개량함으로써 현저한 전투능력 증대와 통상적인 정비기간에 신형장비로 개조가 가능함.

- 3세대 야시장비를 장착하였으며, 포수용 조준체계는 통합 열상장비를 통해 주간 및 모든 기상조건에서 적 125mm 포를 탐지·식별 후 공격
 - 적 125mm 포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반군 및 러시아 군 포를 지칭함
- 디지털 전투관리체계에 통합된 위성항법체계, 통달거리 70km 디지털 무전기, 폭발반응장갑 적용
 - 폭발반응장갑은 SHCOK CORE 탄약 등 현대식 대전차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함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 : 현대로템



우크라이나 육군이 인수한 개량형 T-64 전차

중국, 두 번째 Type 901 고속 군수지원함 취역

○ 중국의 두 번째 Type 901 고속 군수지원함이 해상시운전 완료 후 2018년 12월 취역한 것으로 알려졌다.

- Type 901 군수지원함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따른 지원세력 증강 필요성에 의해 지속 건조
- Type 901 군수지원함의 선도함은 2015년 12월 진수 후 2017년 9월에 취역

○ Type 901급은 연료유 및 항공유 보급을 위한 총 5대의 액체이송 스테이션(좌현 3대 및 우현 2대)과 식량, 탄약 및 일반 잡화용 고체화물 이송장치 2대가 설치되어 있음.

- 전장 240m, 폭 31m, 만재배수량 및 최고속도는 각각 45,000톤 및 25kt로 추정
- 함에 설치된 대형 비행갑판과 격납고를 이용해 2대의 Z-8 중형급 헬기 (medium-lift helicopter)를 탑재하여 수직보급(VERTREP)이 가능하고 자함 방어용으로는 30mm 근접방어무기체계(CIWS) H/PJ-13 4문을 탑재

※ VERTREP: Vertical Replenishment

- H/PJ-13은 중국이 제작한 러시아의 30mm CIWS인 AK-630의 개량형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정보: 현대중공업



두 번째 Type 901 군수지원함(선체번호 967)

러시아, 6세대 무인전투기 오크호트니크 개발 중

○ 러시아는 6세대 무인전투기 오크호트니크(일명 헌터)를 올해 봄 초도비행 시험 예정임.

- 오크호트니크의 형상은 공기흡입구가 동체 위쪽에 붙어 있는 스텔스 전익기 형상으로 추정
- 러시아 국방차관(알렉세이 크리보루츠크)에 따르면 오크호트니크 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

○ 러시아는 오크호트니크를 최첨단 센서 및 장비를 장착하고, SU-57(스텔스 유인전투기)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개념으로 연구 개발 중임.

- 인공지능(AI)을 적용하고, 무선광자(Radio-Photonic) 레이더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으며, SU-57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무장 탑재 가능
- SU-57과 동시 비행 시험을 통해 무인전투기와 유인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개념을 연구 중
- 이륙중량 약 20톤, 최고속도 1,000km/h



러시아의 오크호트니크 대형 UAV 시제기로 추정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정보 : 대한항공(주),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

미 육군, 아이언돔 2개 포대분 도입 예정

○ 미 육군은 단거리 로켓 및 포탄 요격용으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(Iron Dome) 2개 포대분을 도입할 계획.

- 잠정 간접사격방어능력(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, IFPC)을 위한 "단기 소요 충족" 목적
- 아이언돔은 전투를 통해 성능이 입증된 체계로 다양한 간접사격 및 공중위협으로부터 부대를 방호
 - ↳ 육군은 몇몇 다른 체계들도 평가했으나, 비용, 일정, 성능을 바탕으로 타미르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아이언돔 체계를 결정했으며, 이 체계가 의회에서 요구한 잠정 순항 유도탄 방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평가
- 아이언돔 도입과 관련해 얼마가 지출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, 2024년까지 "지속적인 능력" 도입을 위해 16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며, 여기에 아이언돔 체계 도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
 - 미 육군은 아이언돔 2개 분대 도입을 위해 의회에 3억7천3백만불을 요청했으며, 2020년에 인수 예정(ynetnews 참조)

○ 아이언돔은 2011년에 초도 배치된 이동식 단거리 방공체계로서 4km~70km 거리에서 발사되는 무기를 격추하도록 설계.

- 육군은 센티넬(Sentinel) 레이더 및 통합공중미사일방어전투지휘체계(Integrated Air & Missile Defense Battle Command System, IBCS)에 IFPC 인크리먼트 2 구성요소를 통합할 계획
- 아이언돔 구성 : 다기능레이더 ELM-2084(S-band 능동위상배열, 탐지거리 150km (장거리버전은 350km)), 타미르 미사일(무게 90kg, 레이저유도(RF 호밍), 근접신관), 20개 미사일 장착 발사대(5×4), 전투관리통제센터



이스라엘 아이언돔 체계의 타미르 요격미사일이 미 육군의 새로운 방공플랫폼인 IFPC 2 요격용 다중임무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장면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 : 국과연(한화, LIG넥스원)

출처

US Army buying two Iron Dome batteries, operational theatre not identified, janes.ihs.com, 2019. 2. 6.
<https://www.ynetnews.com/articles/0,7340,L-5447797,00.html>, 2019. 1. 16.
<https://janes.ihs.com/Janes/Display/jlada041-jaad>, 2018. 11. 19.